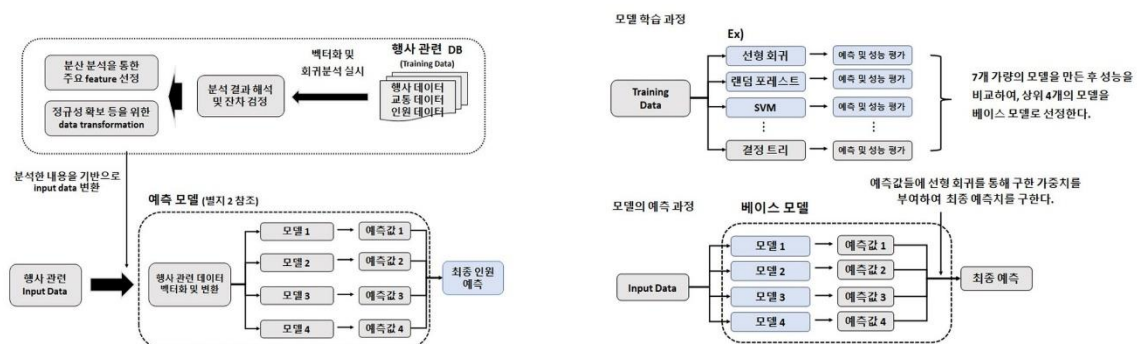


Data Analytics for Business 공모전에 참가하여 예측 모델을 통한 올림픽공원의 행사 참여 인원 예측 및 행사 주최사 컨설팅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하는 '흔돌이' 팀입니다.

예측 모델을 통해 행사 및 축제, 공연의 인원수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배경 지식 확보를 위해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에게 여쭙어볼 것이 있어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흔돌이프로젝트란, 날씨, 지하철 및 버스의 교통량, 주차장 이용량, 이전 공연/행사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앞으로 다가올 축제, 행사, 공연에 참석할 인원수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다음은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세요!

1. 실제로 행사나 축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참여하는 인원수를 예측하나요? 인원수 예측이 필수적이라면, 기획의 어느단계에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예측하는지 궁금합니다.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와 티켓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일반적으로 축제의 참여 인원 수는 '콘텐츠의 퀄리티 x 홍보마케팅'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티켓을 파는 유료축제의 경우 퍼포먼스 마케팅의 cpc를 통해 콘텐츠의 퀄리티를 가늠하고 구매전환 마케팅에 어느정도 비용을 쓸 지를 고민하며 구매인원을 조정합니다(저의 경우는 그랬으나 일반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티켓 판매의 흥행과는 별개로 축제장 내 면적 대비 최대 인원 수를 계산하여 참여인원(티켓 수)의 리미트를 걸어두는 편입니다.

➔ 무료 축제의 경우엔 유료 축제보다 더욱 인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홍보마케팅의 도달률이 참여 인원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날씨, 장소 등 변수 또한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근 지역에서 실행되었던 비슷한 규모의 행사 참여 인원을 기준으

로 예측하는 듯합니다.

2. 행사 기획 시작 단계에서부터 장소 대관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행사나 축제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혹은 개인의 경험에 대해 말해주셔도 됩니다!)

➔ 국가(지자체 등)에서 진행되는 국책 프로젝트의 경우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가 경쟁 PT기준 대략 2주 정도 전에 발표됩니다. 해당 축제는 나라에서 진행하기에 주최가 소유하고 있는 공원 등의 장소에서 진행함으로 별도의 대관은 없습니다. 경쟁PT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받았다면 대략 3~5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축제를 기획, 운영 하게 됩니다. 워터밤 같은 대형 페스티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갖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 행사나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 행사에서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보통 2~3시 이후부터 8시까지로 예측합니다.

4. 같은 행사나 공연을 매년 반복하는 경우, 예상인원보다 적게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 작년대비 금년의 인원 감소를 어느정도 감수하시나요?

➔ 특별히 제작비 혹은 홍보비를 축소했거나 비 등의 변수 없이 인원이 감소되었다면 손익분기점까진 감수할 수 있을 듯합니다.

5. 위에서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이 행사/축제/공연 기획 업계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처음 진행되는 공연이나 축제일 때)

➔ 만약 국내 여러 축제들의 디테일한 사항들까지 빅데이터에 녹여 높은 적중률을 보인다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축제, 공연과 같은 라이브콘텐츠 특성 상 티켓을 구매하게 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라인업, 포스터 이미지, 후기, 홍보물 등) 많은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 이런 서비스를 처음 진행되는 공연이나 축제를 기획할 때 한 번 사용하고, 다음 년도에 똑 같은 축제나 공연을 진행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용하실 것 같나요?

➔ 높은 적중률을 보인다면 예상치 못한 인원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축제 등에선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이런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게 된다면, 지불 의사가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 정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백만원 단위까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서비스가 제공하는 인원수와 실제 오는 인원수의 차이(예측 편차)를 어느정도 감수하실 수 있나요?

➔ 10% 내외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담없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해주셔도 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